

장 현 석  
 (주)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ang Hyon-Seok

## 하늘로 통하는 길 티베트

Tibet - The Path to Heaven

### “하늘로 통하는 길 티베트”

지난해 여름, 티베트의 답사를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김진기, 정광의 선생과 중국 성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답사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  
 고 성도의 하룻밤, 마음 한구석에는 몸이 안 좋아 일행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아침, 성도 시내 삼국지의 주역들이 모셔진 무후사를 둘러보고 곧바로 티베트 전 수도인 라사를 향하여 출발이다. 여행사에서 보내준 지프차는  
 도요다로서 28만 k를 탄 고물차종의 고물차이다. 걱정이 앞선다. 산중에서 고장이라도 난다면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것이다.

라사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 국도318호 노선으로, 30%정도인 강정→팔숙 구간은 지방도를 따라간다. 우정공로라 부르는 라사에서 네팔 국경인  
 장무까지는 지프차 여행객을 많이 볼수 있으나 성도-라사 간에서는 여행객은 거의 볼수 없으며 승용차는 갈수 없는 길로 트럭이 가장 큰 교통수단  
 이다. 트럭 짐 위에 빼곡히 앉은 사람들은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그리고 정상에 다다르면 신의 가호로 무사했음을 빌고 무사하기를 비는 행사를  
 갖는다. 그래서 산정상마다 오색 찬란한 룡다와 탈루초가 뒤엉겨 세찬 바람에 펄럭인다.

천길 낭떠러지라는 말은 정말 이곳에서 쓰는 말인 듯 하다. 벼랑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수백 미터에서 1km를 넘는 곳이며, 도로 또한 폭 5m정도  
 의 비포장에 우기 철이라 저녁마다 내리는 비 때문에 바윗돌들이 뒤엉킨 진수렁길이다.

성도를 지나면서부터 차량의 고도계는 3,000을 내려올 줄 모른다. 고개라면 대개는 4,000을 넘는다. 한국에서 준비한 산소는 인천공항에서 빼

앗기고 중국에서 다시 준비한 산소와 이노제를 번갈아 먹으며 고산 증세를 극복하느라 안간힘을 썼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아프다. 차에서 내려 사진만 찍고 나오 숨을 몰아 쉬어야 한다.

티베트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미처 몰랐다. 지프차 뒷자리에 앉아 엉덩이가 까질 정도의 길이니까 상상으로 짐작이 갈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길인 반면 주변에 펼쳐지는 경치들은 정말 놀랍다. 금강산은 짐세기 삼으려고 짐에 물도 안축인 격이다. 돌아서는 모퉁이마다 금강산이요 조금 높다하면 흰 눈을 이고 있는 만년설산이다. 초원은 지평선으로 이어지고 그 초원은 온통 이름 모를 꽃밭이다. 마치 양탄자를 깔아 놓은듯한 꽃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한 가롭게 풀을 뜯는 양떼와 야크들이 별천지를 연출한다.

### “티베탄의 삶”

구 티베트 국경이 아직 멀었는데 농가들은 모두 티베탄들의 가옥 형태를 하고 있다. 나라에 관계없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어진 집들이다.

벽체 구조는 대개 두 가지이다. 돌이 많은 곳은 자연돌로 쌓고 흙이 많은 곳은 진흙 판축벽으로 쌓고, 대개는 2층으로 1층은 양이나 야크의 우리이고 2층은 살림집이다. 살림집 한쪽은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흙으로 된 옥상은 곡식을 말리고 가축 먹이풀들을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옥상난간은 말린 야크 똥을 쌓거나 가뭇은 나무뿌리를 쌓아 겨울철을 대비하는 연료 비축 장소이다. 화장실은 외부벽에 돌출하여 2층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도록 하고 바로 밭으로 연결된다. 휴지는 없고 풀을 화장실 벽에 올려놓고 사용한다. 퇴비로 이어져 자연 친화적이다. 1층에서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에 오픈된 공간으로 이어지고 거실 겸 주방이 있

는데, 한가운데 난로 겸 조리용 시설이 있고 주변에 의자가 있으며 한쪽벽에 찬장이 있다. 연료는 산에 나무가 없으므로 야크 똥이 유일한 연료이다. 대문밖 벽에는 반죽하여 붙여놓은 야크 똥들이 즐비하다.

야크는 이곳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젖으로 차를 만들고 볶은 보리가루에 차를 넣어 반죽한 찜파(주식)도 야크 젖이 없으면 만들지 못한다. 가죽으로는 천막과 옷을 짓고 고기는 담백질 공급원이다. 심지어 배설물까지도 가장 귀중한 연료이니 야크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이토록 열악한 생활속에서도 어느 한사람 얼굴은 찌푸리고 근심걱정이 있어 보이는 이가 없다. 옷을 만든후 한번도 세탁하지 않은 다 헤진 옷을 입고 언제 씻었는지 모를 손에 검붉게 그을린 주름깊은 얼굴이지만 항상 미소로 일관하는 그들은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 중국의 지배 하에 별짓을 다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그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



① 나사로 가는길 - 해발 4천이 넘는 산을 매일 넘는다.



② 해발 4천이 넘는 길 - 길 좌우 외평원에 펼쳐진 이름모를 꽃들,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정말 신비스럽다.

③ 산 정상에는 어느곳이나 오색의 풍대와 탈루초가 필력이다. 정상에 무사히 도착했음과 앞으로 갈길에 무사함을 비는 의식이 이어진다.(가초라산 정상 해발 5,220m)

은 오직 종교의 힘이고, 종교를 믿고 수행하  
는 그들만의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다.

### “티베트의 불교”

티베트의 전통 토속 종교는 본교이었는데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다. 불  
교에서의 환생의 의미와 토속 종교인 본교의  
정신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티베트 불교  
는 우리나라 보다 뒤늦은 8세기에 인도승려  
“파드마 삼바바”가 힘준한 히말리아를 넘어  
하늘밧의 가장 가까운 나라 설원의 땅 티베  
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티베트 불교는 님마파, 카규파, 사카파, 게  
룩파 등 크게 4개의 종파로 나뉘지는데 제일  
먼저 “님마파”가 생겨나 일명 “고파”라고 하  
며 붉은 옷에 붉은 모자를 쓴다고 “홍교” 또  
는 “홍모파” 라고도 하며 대처승이다.

다음은 “카슈파”로 초기에 장발에 흰 옷을  
입고 사찰을 흰색을 칠하여 “백교”라고 불렀

지만 지금은 게룩파와 비슷한 붉은색의 가사  
를 입는다. 그 후 11세기 무렵 사카라 지방에  
서 “사카파”가 창건되었다. 이종파는 문수,  
관음, 금강을 의미하는 홍, 백, 흑을 주된 문  
양색으로 사용하여 일명 “화교”라고 하였으  
며, 13세기에 원나라를 등에 업고 아주 강성  
했으므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카파는 건물에 시내 중심에 도성처럼  
조성하고 그 내부에 불당을 모시고 원장이  
모든 것을 통치하였으므로 안내 간판에는 사  
카성이라고 표현하였다.

가장 늦은 14세기에 형성된 게룩파는 현  
재 티베트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  
파이다.

달라이라마가 바로 이 종파의 수장이다.  
붉은색의 옷에 노란색 모자를 쓰기 때문에  
“황모파”라 부르기도 한다. 드레퓀사원, 세라  
사원, 간덴사원, 조강사원 등이 모두 게룩파  
가 자랑하는 사원들이다. 특히 조강사원은  
티베탄들에게 가장 신성한 최고의 성지로 손  
꼽는 사원이다. 그러므로 조강사원 앞 넓은

광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체투지를 하  
고 코리를 도는 티베탄 들로 줄을 잇는다. 사  
원앞 돌바닥에서 이마와 양팔꿈치, 양무릎을  
땅에 닿도록 가장 낮게 엎드려 절하는 티베  
탄들을 보면 이곳이 티베트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수 있다.

윤회와 환생, 삶과 죽음, 끝없는 수행 등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펼쳐진 이곳…… 얼마  
나 많은 이들이 엎드려 빌었는지 돌바닥은  
움푹 패이고 반들반들 빛이 난다. 겉모습이  
허술해 보이는 이 티베탄들의 마음은 저 돌  
바닥같이 빛이 나리라…….

조강이란 티베트 말로 “부처의 집”이라고  
한다. 조강사원은 7세기 중엽에 창건된 티베  
트 최초의 목조건축으로 당나라의 문성공주  
가 시집올때 가져온 불상과 티베트를 통일하  
고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송첸감포  
왕, 그리고 그의 부인들인 중국의 문성공주  
와 네팔의 브리쿠타공주의 상이 본전에 모셔  
져 있다. 또한 조강사원 옥상에서 바라보는  
히말리아 산봉우리와 라사의 상징인 포탈라



④ 티베트의 민가. 판축토벽에 지붕도 진흙을 다져 마감했다. 화장실에 물이 걸려있다. 물이 화장지이며 밧으로 이어진다.



⑤ 조강사원 앞에서 오체 투지는 티베탄들 가장 낮은 자세로 부처님에게 절을 한다. 바닥들이 움푹 패이고 거울같이 반들거린다.



⑥ ⑦ 티베탄의 모습. 손가락이 뭉그러지도록 삶은 어려우나 마음은 행복하다.

궁은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포탈라궁은 정치와 종교의 합일임을 상징하는 라사의 대표적인 건물로 달라이라마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평가받는 5대 달라이라마가 몽고의 정복시 파괴된 포탈라궁을 완벽하게 완성하므로써 티베트의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데 성공했다. 완성되기전 5대 달라이라마는 입적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공사에 차질이 올 것을 우려해 알리지 못하게 하고 완성하였다.

포탈라궁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전날 입장권을 600매만 한정 판매하여 외국인 관광객들만 보인다. 8년전에 들렀을때는 다른 사원과 같이 티베탄들이 한데 어우러져 훨씬 티베트 사원다웠는데, 많이 변했다.

포탈라궁의 완성과 많은 사원들이 지어지고 부처님의 말씀이 티베탄들에게 퍼지면서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제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포탈라궁은 사원이지만 분명한 왕궁이다. 역대 달라이라마가 이곳에 거주했고, 이곳에 그들의 무덤이 있으며 법당을 비롯한 승려들의 학교, 도서관, 숙소까지 이곳에 있다. 14대 달라이라마가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기전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건물의 흰색은 정치를 의미하고 붉은색은 종교를 의미한다. 포탈라는 티베트어로 “깨끗한 땅”을 뜻한다. 흰색의 백궁은 정치를 돌보는 곳이고, 붉은색의 홍궁은 종교 행사를 주재하는 곳이다.

중국 침략이후 문화혁명에 극에 달했을때 홍위병들이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이궁을 파괴하려 할 때 “주은래”가 군대를 배치하여 홍위병의 파괴를 막아 지금까지 보존된 것이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 “살아있는 성불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는 몽골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게룩파의 3대 수장이었던 “소남가초”가 몽골의 알탄칸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다. 몽골어로 “큰바다”라는 뜻으로 천수관음보살을



⑧ 라사의 상징인 포탈라궁, 정교합일의 상징이며, 달라이라마가 정치와 종교 의식을 하는 티베트의 궁궐이다.

상징한다. 1대부터 현재 망명정부의 14대까지는 하나의 통일된 영적 연결고리를 통해 환생을 거듭하여 이어진 것이다. 14대 달라이라마가 25세때에 중국의 총칼에 밀려 100여명의 망명단과 함께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여 40여년을 망명정부를 이끌며, 중국 무장군에 의해 학살된 10만여 명의 티베탄들을 가슴에 묻고 전 세계에 독립을 호소하며 살고 있다.

### “히말리아를 넘는 우정공로”

티베트와 네팔의 지세를 잘 몰라 답사를 떠나기 전에는 국경지대가 히말리아 산맥인 줄 알았다. 그러나 국경지대는 장무인데 2,000m 정도의 낮은 계곡지대이고 실제로는 울드팅그리에서 장무로가는 마지막 5,000m 고갯길인 라롱라가 고갯길의 절정이다.

라사에서 시가체로 이어지는 길이 국도 318호선인데, 우리 일행은 암드록초를 보기 위해 험난한 길을 택하였다. 이길은 암드록초 호수가를 돌아 나가체-장체-시가체로 이어지는데 모든 구간이 대부분 공사중이며 진수령길이다. 공사중인 곳은 한번 막으면

2~3시간을 막아도 대기하는 차는 10여대뿐이다. 거의 이 길을 가는 이가 없는 것이다. 대기하는 시간에 라면을 코펠에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동네 꼬마들이 모여 앉아 할미꽃처럼 꼬부라진 꽃을 손에 들고 꼬부라진 꽃을 서로 걸고 던져 꺾기놀이를 하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노는 아이들이 천진스럽다. 과자를 하나씩 주고 함께 어울렸다. 먼저 왔을 때는 먹을 것을 달라고 어른, 아이 없이 모여 들었는데, 중국의 개방경제 정책이 시골이 들까지 변화시켰음이 실감난다.

나가체의 초대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이다. 3인실의 침대방이다. 자려고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냄새가 어찌나 대단한지 얼굴에 옷을 덮었는데도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이 가빠서 거의 밤을 새우고 아침에 화장실을 가보니 가판이다. 남자화장실 문이 조금 열려 틈으로 보니 한명은 서서 소변을 보고 한명은 앉아서 큰일을 보고 있다. 한칸에 두 개의 구멍이 있어 2인용 화장실이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들어갈 수가 없다. 세수는 엄두도 못내고 마호병의 물로 양치질과 눈꼽만 떼고 하루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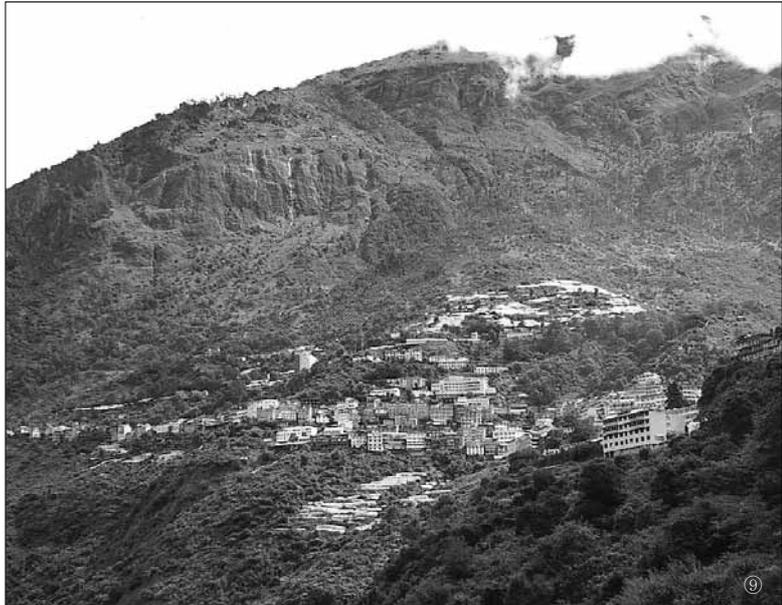
어제밤의 숨쉬기 어려웠음이 아침에야 숙제가 풀린다. 4,000m의 고지대에 산소가 희박한데다가 냄새 때문에 옷으로 얼굴을 가렸

고, 더군다나 공기층이 적어 산소 부족이 생긴 것을 깨달았다. 정말 어려운 답사길이다.

휴먼지길을 돌아 장체에 도착하니 장체 하늘은 온통 휴먼지로 싸여 있다. 시내를 들어가니 모든 시가지가 공사중이다. 먼저 왔을 때의 옛마을은 자취를 감추고 남아있는 것은 요새와 성곽뿐이다. 요새 앞에 아주 넓은 광장을 만들고 중국 상징 탑을 세웠다. 티베트 말살정책이다.

완벽하게 중국식으로 개조되고 있는 장체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라 잃은 설움이 이런 것 이구내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한 것이 생각한다. 아무것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빨리 장체를 벗어나는 것밖에……

시가지는 티베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시가지도 8년전의 모습이 아니다. 중국식 도시 계획에 의해 완전히 변화되었다. 시내 뒷산 언덕에 있는 타실훈포 사원만 옛 모습을 하고 있다. 아침이라 청소를 막 끝낸 젊은 승려들이 빗자루를 들고 관광객들을 구경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구경하는지 모르겠다. 타실훈포 사원의 수장은 판첸라미이다. 4대 판첸라미가 5대 달라이라마의 수제자로 있으면서 이때부터 "판첸라미"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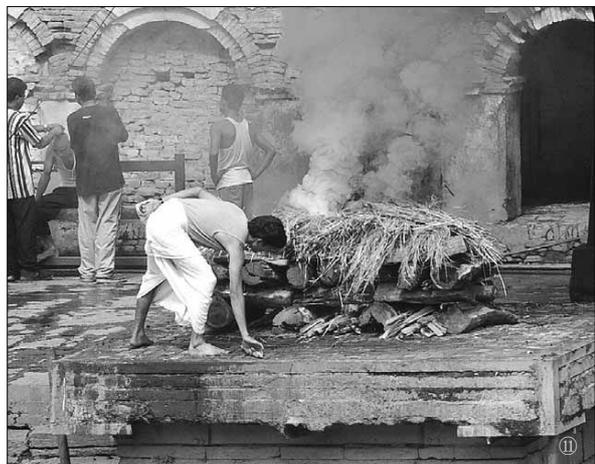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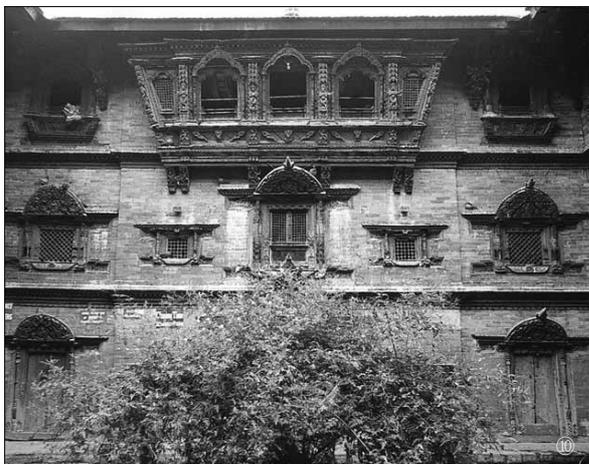


티베트의 환생자로서 달라이라마 다음 서열인 판첸라미도 달라이라마처럼 제도적 환생을 통해 환생을 거듭한다.

1995년 달라이라마가 여섯 살된 "겐둔 최끼니마라"를 11대 판첸라미로 인정하자 중국은 새로 운영적 지도자를 없애기 위해 이 어린 소년을 납치하여 아직까지 생사여부를 확인 할수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어린 정치범으로 전해진다. 반면 중국

에서 선정한 판첸라미를 내세웠다. 티베탄들은 이 판첸라미를 가짜라고 외면하고 있다.

시가지 시내를 지나며 도로변은 아름다운 계곡과 대평원을 이어간다. 올드팅그리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로 가는 길도 국도가 아니다. 올드팅그리에서는 8,000m급의 히말리아 산들은 한번에 볼 수 있다. 에베레스트(8,848), 마칼루(8,481), 초오유



⑨ 국경도시 장무. 높은산 경사지에 형성된 경제무역도시, 밤에는 외국인들과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룬다.  
 ⑩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집' 삼중가운데 청문으로 관광객에게 얼굴을 보여준다. 물에서 피를 보면 신의 생명은 끝난다.  
 ⑪ 네팔의 화장풍경 상주가 삭발을 하고 있다.

(8,153) 등 고봉들이 병풍처럼 이어진 다. 그러나 그 산들의 얼굴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건기철이 아니고는 보기 어렵다. 새벽부터 옥상에 올라 얼굴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망원카메라를 걸고 기다리고 있다.

가장 높은 라롱라는 대평원의 정점이다. 7,000m급의 이름모를 산들과 시샤팡마(8,046)가 눈앞에 있다. 구름 거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점심 라면을 준비했다. 5,000m의 대평원 정점에서 신라면의 이 맛을 어디에 비기랴…….

3시간을 기다려도 시샤팡마에 걸린 구름은 거칠줄을 모른다. 하산이다. 이곳부터 장무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계곡이다. 구름속에서 2시간쯤 지났을때 창밖에 펼쳐지는 계곡은 정말 환상적이다. 보이는 곳마다 동양화이다. 온통 폭포에 절경이다. 이곳에서 한여름 산다면 신선이 될 것이다. 바람에 불은 이름모를 꽃들이며 장승이 된 고목들, 계곡 밑의 맑고 많은 물 폭포들, 이런 곳도 있구나. 눈이 의심스럽다. 장무는 이런 계곡 70도의 비탈에 생긴 국경도시이다. 밤이면 북적이는 사람들, 술집, 이런 산곡에 이럴 수가 있을까 불가사의한 도시이다.

###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

국경에서 10분만에 입국비자를 발급받고 지프차 1대를 70불에 카투만두까지 약속을 하고,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카투만두로 향한다.

국경을 지나면서 집들이 완전히 다르다. 경사지 계단식 경작지에 간이 농막처럼 비탈에 매달린 농가들, 지붕은 경사 함석지붕들이다.

이런 산간 계곡의 고봉거리는 길을 따라 4시간 반 정도를 지나니 산 아래로 도시가 나타난다. 고층건물은 물론 아파트가 한 채도 보이지 않는다. 온통 자동차 매연에 쌓인 도시, 이곳이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이다. 제일먼저 찾은곳이 파슈파티나트이다. 시바신을 모신 힌두사원인데 사원보다는 화장터로 더 유명하다. 강가에 여러개의 화장시설(강에 돌출된 네모난 돌 바닥)이 있고 벌써 몇군데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한 젊은 여인의 시신이 화장 작업중이다. 몸에 걸친 옷(천으로 된 사리)을 벗겨 강물에 던지고 물통에 강물을 떠다 얼굴을 씻기고 바로 장작위에 누인다. 잿뭉치 끝에 불을 붙이고, 시신을 한바퀴 돈 다음 장작에 불을 붙인다. 피어오르는

연기에 시신이 휩쓸일때 짐을 덮어 불이 더욱 잘 타고 시신이 보이지 않게 한다. 옷을 벗겨 강물에 던지는 순간 이사람은 생전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알몸으로 저승으로 가는 것이다. 저것이 인생이건대 무엇을 어찌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사는 것인가? 한치의 지식, 한푼의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일진대 무엇을 하다가야 하는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번 답사기간중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다.

안나푸르나를 보기위해 포카라로 날고 있다. 20인승 경비행기, 숨으로 귀를 막고 히말리아의 산줄기를 보며 구름속을 난다. 충북의 산악인, 한국의 대표여성 산악인 지현옥대원이 묻혀있는 산이다. 안나푸르나는 길게 이어져 남봉 제1, 2, 3, 4봉으로 이어진다.

어느곳에 묻혔는지? 바라보는 마음속이 아리어 온다.

이번 답사는 여기서 마지막이다. ㉔



㉔ 히말리아의 안나푸르나 영봉들 왼쪽부터 남봉(7210), 1봉(8091), 뾰족한 마차프르레(6993) 처녀봉임. 3봉(7555) 4봉(7525), 2봉(7937) 람준히말(6986). 충북의 산악인 지현옥대원이 묻혀있다.